

난민아동에게는 식량보다 교육이 필요하다.

권회창, 김도연 기자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국제분쟁과 충돌로 인해 지난 해 난민의 수가 6000만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유엔난민기구가 지원 대상으로 하는 난민 중 51%가 18세 미만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12세 이상 어린이가 전투원으로 징집되고 있으며 100만명의 어린이가 인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연구결과가 그 해답을 제공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노르웨이 난민위원회와 함께, 에티오피아 난민캠프 및 콩고민주공화국 마시시 지역 아동과 부모, 교사, 주민 대표 등 250명을 대상으로 '내전으로 인한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오랜 내전에 지친 이들의 대답은 놀랍게도 식량과 안전한 쉼터, 의복 등이 아닌 '교육'이었다.

이들에게서 왜 이러한 답변이 나왔을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201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말라라는 아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이 아동 난민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즉, 이들에게 교육이란 그들의 상처를 극복할 긍정의 매개체인 것이다. 과거의 악몽 대신 미래를, 증오 대신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이 발생한 고국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국의 미래 세대이다. 현재 난민 아동들의 고국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건물, 산업체, 학교, 길, 집. 어느 하나 온전히 서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난민 아동들은 언젠가 반드시 고국에 다시 돌아와서 고국을 재건하는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지닌 로컬 인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 교육은 이들에게 고국의 평화와 안녕을 지킬 열쇠를 쥐어줄 수 있다.

그렇다면 난민 아동 교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난민아동교육의 필요성을 미디어에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며, 이 감정을 설득시키는 순간 행동으로 직결될 수 있다. 난민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는 적나라한 현실을 대중이 직면하는 순간, 그들 중 상당수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난민 아동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을 도울 모금 단체와 방법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얌에 그치고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둘째, 기부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의 강화이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유니세프나 구호 단체들에 대한 불신으로 지원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금된 금액들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부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다.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명분이다. 충분한 명분이 있다면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마련이다.

난민 아동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비극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미래 또한 비극으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 교육이 해답이다.

<Refugees children need education rather than food>

Kwon Hoichang, Kim Doyeon reporter

The number of refugees hit an all-time high last year, surpassing 60 million due to incessant global disputes and clashes around the world. UNICEF says 51 percent of refugees supported by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are under the age of 18. Most of the children aged 12 and over are being drafted into the military as soldiers, and one million are dying of diseases and malnutrition without humanitarian aid.

What can give them hope?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the answer. 'Save the Children' and 'Norway's refugee committee' conducted a survey of 250 children, parents, teachers and resident representatives from Ethiopia's refugee camp and the Mashishi reg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he question i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get out of the poverty and suffering of a civil war?' Surprisingly, the answer is not clothing, safeshers, products, it was education.

Why did they come up with this answer? Maybe it's a natural result. Also, the center of the country where the refugees occurred is the future generation of the country. The country of refugee children is now completely destroyed. Building, industry, school, road, house. None of them stand completely. But someday, refugee children will have to come back to their homelands to resolve their share of rebuilding their homeland. In this process, local talent with a variety of skills and knowledge is essential. Education is a way of protecting the peace and well-being of their country.

So what is the way to get direct support for refugee child education?

First, it focuses people's attention by exposing the need for refugee child education to the media. Humans are animals of emotion, and they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action that persuades this

emotion. As soon as the public faces the naked reality that the social under privilege of refugee children is not guaranteed at least the right, many of them will start to act. What is important here is to present the reality of the refugee children and to suggest ways of raising money to help them at once. Otherwise, most people simply stop knowing and do not act.

Second, strengthen transparency and accessibility to the use of donations. In fact,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reluctant to support because of distrust of relief organizations. To improve on this, we need to change the system so donors can more easily access how donated funds are used and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end, it is a reason for people to make action. If there is sufficient justification, the action will naturally take place.

The reality of refugee children is a tragedy. However, there is no reason for these children's future to lead to tragedy. Education is the answer.